

제목	국문	유방암 검진방법으로서 임상진찰, 유방촬영 및 유방초음파의 민감도 비교연구			
	영문				
저자 및 소속	국문	이원철, 황인영, 김미혜 <sup>1</sup> , 이경재 <sup>2</sup> , 김훈교 <sup>3</sup>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강서미즈메디병원 방사선과 <sup>1</sup> , 순천향대학교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sup>2</sup> , 가톨릭대학교의과대학내과학교실 <sup>3</sup>			
	영문				
분야	역학 [암]	발표자	황인영 [일반회원]	발표형식	구연
진행상황	연구중 → 완료예정시기 : 2002년 3월 1일				
<p><b>1. 목적</b> 유방암 검진방법으로 사용되고있는 임상진찰, 유방촬영, 유방초음파의 민감도를 비교해 보고자 함. 특히 증상군과 무증상군에서 이들 검진방법의 민감도를 비교하여 조기검진방법으로 이용 할 경우 민감도를 평가하고자 하였음</p> <p><b>2. 방법</b> 연구대상자는 2000년 2월부터 2001년 2월까지 한곳의 병원 외과로 내원한 사람들 중 유방암으로 확진된 9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함. 연구과정은 대상자 내원시 문진을 통하여 방문이유를 조사하여, 증상군과 무증상군을 구분하여 기록함. 문진후 외과의에 의하여 양쪽 유방촉진검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기록함. 이후 유방촬영은 임상진찰 결과를 모르는 방사선과전문의에 의하여 임상진찰과 독립적으로 양쪽유방을 촬영하게 하고 ACR BI-RADS 에서 제안한 category 로 입력함, 다시 유방초음파를 유방촬영 film 를 보면서 실시하여 결과를 category 로 입력함. biopsy 를 실시하여 조직학적으로 확진함. 본 연구에서 각 검사방법의 민감도는 각 검진결과 양성자를 유방암으로 확진된 사람들로 나누어 구하였음.</p> <p><b>3. 결과</b> 본 연구결과 유방암 환자들의 연령분포는 40대가 4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30대(29%), 50대(20.4%), 60대(7.5%), 20대(3.2%)순이었음. 유방암으로 진단된 94명중 76명(80.9%)이 증상군이었고, 18명(19.1%)이 무증상군이었음. 증상군에서는 유방덩어리(mass)를 호소한 환자들이 79.8%로 가장 많았음. 가족력이 있는 군은 7.4%였고 없는군은 92.6%였음. 임상진찰의 민감도는 전체 66.0% 증상군에서 78.9%, 무증상군에서 11.1%였음. 유방촬영의 전체 민감도는 87.2%이고 증상군 89.5% 무증상군 77.8%였음. 유방초음파의 전체민감도는 92.8% 증상군에서는 100% 무증상군에서는 83.3%였음.</p> <p><b>4. 고찰</b> 미국등 유방암 조기검진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있는 국가들에서는 이들 방법들의 평가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미흡함. 또한 이들 방법들은 유방의 특성에 따라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서구의 결과만을 가지고 우리나라 여성의 유방암 조기검진에 적용하는것은 합리적이지 못함. 본 연구는 대상자 수가 적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한 대상자에게 각 검사방법을 수행하여 민감도를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그 결과 임상진찰(clinical breast examination)은 민감도가 66.0% 유방촬영은 87.2% 유방초음파는 92.8%로 임상진찰 보다는 유방촬영을 실시한 경우와 유방초음파를 실시한 경우 민감도가 증가함을 보여주었음. 더욱 의미있는 결과로는</p>					

무증상군에서 증상군에 비하여 모든 검사방법의 민감도가 낮게 나타났음. 무증상군에서 임상진찰의 민감도는 매우 낮아 11%로 조기검진이 증상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볼때 조기검진방법으로서의 한계점이 있음을 보여주었고 유방촬영은 77.8%, 유방초음파의 민감도는 83.3%로 민감도는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결과를 나타내었음. 비용-효과를 고려하여서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하겠지만 유방암 조기검진방법으로 임상진찰을 이용하는 방법은 더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것으로 사려됨